

# 전남, 귀농인 정착 활 견어... 농창업·주택 지원 전국 '1위'

올 전국 19% 규모 614억 확보  
상반기에만 170명에게 417억  
연간 4만여 명 인구 유입 효과



전라남도는 올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으로 전국 최대인 614억 원을 확보해 귀농인의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청

전라남도는 올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으로 전국 최대인 614억 원을 확보해 귀농인의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을 이끌고 있다. 이는 전국 규모 지원자금 3251억 원의 19% 규모다.

귀농 창업자금은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후 전남에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만 65세 이하 세대주 중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귀농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간 영농 경험이 없는 비농업인에게 지원한다.

자금은 농지 구입,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가축 입식 등 영농기반 구축에 쓰인다. 최대 3억 원을 지원하

며, 연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여기에 추가로 연 1% 이자를 3년간 지원한다.

귀농인의 생활 공간 마련을 위해 주거 구입·신축에 필요한 주택자금은 최대 7500만 원을 연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 귀농 창업자금 417억 원을 170명에게 지원했으며, 하반기 자금 197억 원은 시군에서 8월 중 대상자 선정을 마치면 본격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일정 기간 내에 마무리며 농촌 문화를 체험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민 대상 교육·상담·정착을 한 번에 서비스하는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서울 양재동)’ 운영하는 등 다양한 귀농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매년 4만 명 이상의 귀농어귀촌인이 전남에 유입되고 있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귀농 창업자금을 해마다 꾸준히 확보해 농촌 이주 초기 자금력이 부족한 귀농인이 최대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며 “전남을 전국에서 가장 귀농어귀촌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남도는 귀농 창업 자금으로 역대 가장 많은 737억 원을 확보해 농업 창업자금 336건, 주택자금 111건을 지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부동산 특별조치법 4일 종료 부산시 “기간 내 신청하세요”

부산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 실소유자가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부산시의 경우 ▲강서구 녹산동, 가락동, 가덕도동 ▲기장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축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만 적용된다. /부산=장병호 기자

# 경남, 어업 경영지원에 346억 추가 투입

고유가 어업분야 위기극복 차원  
유류비·바다목장 조성 등 지원

경상남도는 고유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어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총 346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경남도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증액 사업은 ▲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75억 원 ▲어업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11억 원 ▲연근해어선

감척 195억 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사업 4억 원 ▲친환경 개체급 생산 시설 지원 24억 원 등 총 15개 사업이다.

최근 어업용 면세 경유의 가격이 2배가량 상승하고 어가 소득도 감소하는 등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출어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안어선에 45억 원을 추가 지원하며, 한시적으로 근해어선에 신규로 3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어업작업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의 생명 보호 및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어선의 침몰 화재 충돌 등 해난사고 발생 시 재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어선 재해보상보험 등 3개 정책보험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총 3,049명의 어업인과 1,642척의 어선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수산자원 회복과 연근해어업의 경

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감척사업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2021년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연안어선 7척과 2022년 근해어선 감척대상인 17척에 대해 총 195억 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남해 천하해역 바다목장 외에 추가로 4억 원을 지원하여 거제 공농해역에 소규모 바다목장을 조성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연안 수산자원의 감소에 대응해 수산생물 산란·서식장을 위한 소규모 바다목장을 조성해 어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어업인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장병호 기자 metrobusan1@

### 나주시 농산물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

전라남도 나주시가 이달부터 로컬푸드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먹거리 안전성을 공인하는 ‘로컬푸드 인증제’를 전면 시행한다.

나주로컬푸드 인증제는 산지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에 대해 일정한 안전성 기준을 적용하고 인증마크를 출하 상품에 표시하는 제도다.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 6~7월 시범 운영을 거쳤으며 8월 1일부터 나주 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 금남점 출하 농산물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성을 공인받은 산지 농산물 공급을 통해 농가는 신뢰와 소득을 얻고 소비자는 신선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나주로컬푸드 상생의 가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양수영 기자

# 전남교육청, 정주형 장기유학 확대

민선 4기 발전과제 선정

지난 2021년 시작해 코로나 시대 새로운 교육대안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전남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이 민선4기 전남교육 출범을 맞아 ‘정주형 장기유학’ 확대 등 내용을 보강해 재도약을 꾀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민선 4기 ‘전남교육 대전환’의 첫걸음으로 교육을 통한 찾아오는 전남만들기를 위해 전남농산어촌유학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지난 1년 반 동안의 농산어촌유학 사업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주형 장기유학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주형 장기유학은 유학 온 지역에 최소 5년 이상 전 가족이 이주해 생활하는 것으로 올 1학기



전남농산어촌유학생 농촌체험. /전남교육청

‘해남북일초등학교와 두륜중학교’에서 처음 시작했다. 두 학교의 정주형 장기유학은 교육청과 지자체(해남군),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민·관·학’ 협업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 울산시, 2022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최우수 ‘수소 그린 모빌리티 특구’

울산시는 ‘2022년 울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시상했다.

2022년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추진된 규제혁신사례(17건)중 심사단(8명)의 심사를 거쳐 6건(최우수 1, 우수 2, 장려 3)이 선정됐다. 심사 기준은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이다.

최우수 사례는 울산시 에너지산업과의 ‘울산 수소 친환경 이동수단(그린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례가 선정됐다.

이 사례는 수소 선박, 수소 지게차 등 수소 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제품 제작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 부재로 제품을 상용화

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 실증특례 승인, 수소 연료전지 실내물류 운반기 및 선박 상용화 실증 착수, 법령 개정 건의 등으로 신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한 사례다.

울산시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수는 ▲국내 최초 ‘울산 수소트램’으로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다(울산시 광역교통정책과) ▲영남알프스 9봉 완등 인증사업 고도화를 통한 지역활성화(울주군 관광과)가 받았다.

시상금은 최우수상 15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장려상 5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부산관광공사 중화권 관광객 대상 관광 홍보

부산관광공사가 중화권 관광객을 위한 여름관광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공사는 부산시와 함께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름관광 프로모션 ‘나의바다, 심쿵부산’을 진행한다.

한국관광공사 청두지사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급감한 중화권 관광객의 부산관광 수요를 회복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공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유명 인플루언서 11명과 함께 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송도, 임랑 등 부산지역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여름관광 콘텐츠를 소개할 계획이다. 공사가 기획한 콘텐츠는 중국의 주요 SNS 플랫폼 도우인(TikTok), 샤오홍슈, 웨이보를 통해 송출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법인세 중간예납 이달 말까지... 코로나 피해면 3개월 연장  
▲ 내일부터 ‘무증상 밀접접촉자’ 코로나 검사비 5000원 /사진 뉴시스

▲ ‘3高’에 코로나 재확산까지... 자영업자 3명 중 1명 “폐업 고려”  
▲ MB·김경수·이재용·신동빈... 법무부 이르면 9일 사면심사위



▲ 형사 재판 사실 드러나 대통령비서실 합격 취소... 대법 “정당”  
▲ 글로벌 해운운임 7주 연속 하락 /사진 뉴시스